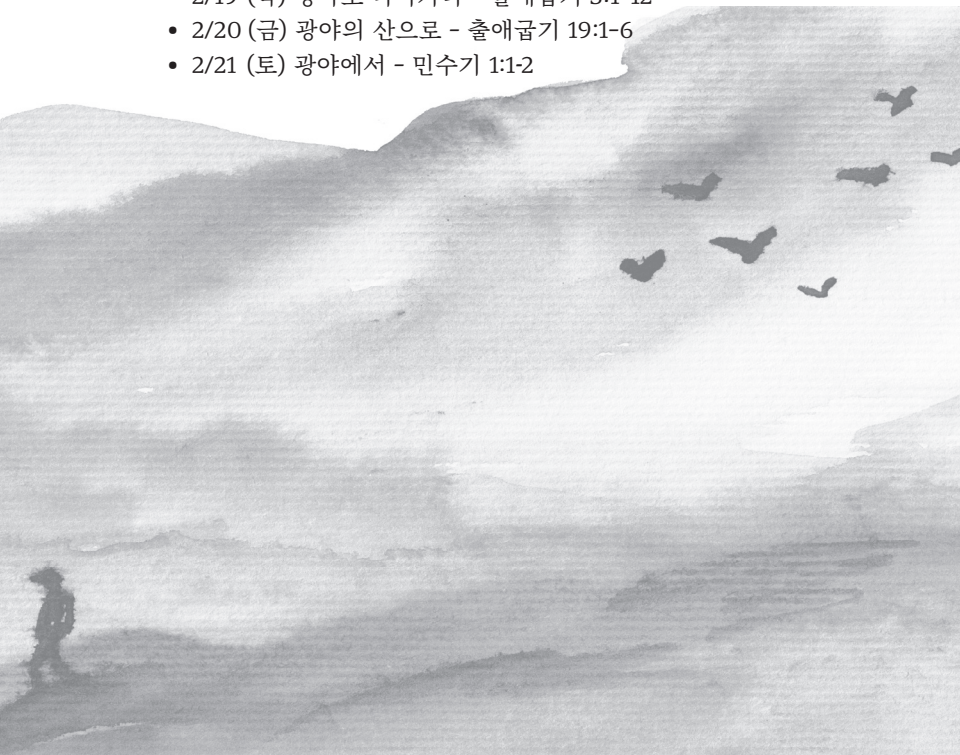


첫째 주간: 광야로 부르심

광야는 시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익숙한 땅에서 벗어나 오직 그분의 손을 붙잡도록 부르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 우리도 광야에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이 주간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묵상하며, 회개와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사순절의 첫 숨처럼 두려움이 물러나고 새 생명이 움트는 자리입니다.

빛은 회개의 눈물로 피어난다.

- 2/18 (재의 수요일) 광야에서 첫걸음 - 요엘 2:12-17
- 2/19 (목) 광야로 나아가다 - 출애굽기 3:1-12
- 2/20 (금) 광야의 산으로 - 출애굽기 19:1-6
- 2/21 (토) 광야에서 - 민수기 1:1-2



요엘 2:12-17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13절)

찬송: 525장, 돌아와 돌아와

뉴욕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온 형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침이면 셔터를 올리자마자 말씀을 읽고 기도했어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첫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는 일곱 번 사업에 실패하고 여덟 번째로 카센터를 열었습니다. 개업예배 날, 히브리서 6:14절—“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이 담긴 액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 앞에 먼저 서 보세요.” 저는 잊었지만,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12년이 흐른 어느 날, 그 형제가 말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첫 걸음은 언제나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기도는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조용한 숨결이었습니다. 그 숨결이 쌓여, 모래 위에 길 하나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이마에 재를 얹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라는 말씀을 되새깁니다. 이 말씀은 한줌의 흙으로 돌아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 멈춰 선 자리가 곧 광야입니다. 광야는 벗겨지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체면도, 위선도, 말 한마디 조차도 바람에 씻겨 나가고, 마음은 조용히 기도가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폐허의 땅에서 백성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욘 2:13). 이 외침은 절망 위에 놓인 희망의 씨앗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 그 단순한 걸음 하나가 희망을 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설 때, 길이 없는 듯해도 발 끝에서 길은 시작됩니다.

“돌아오다”(12-13절)로 번역된 히브리어 ‘슈브’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음이고, “돌이키시다”(14절)로 번역된 ‘나함’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는 자비의 응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도 마음을 여십니다. 그렇게 두 마음이 서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방향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기다림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요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해 울라고 명합니다. 회개는 나 하나의 돌이킴에서 시작되지만, 그 눈물은 굶주린 땅과 찢어진 세상, 전쟁과 먼지 속 아이들에게 까지 번져야 합니다. 사순절은 세상에 우리의 눈물 한 방울을 적시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른 흙에 스며든 그 눈물에서 부활의 싹이 돌아날 것입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분께 돌아서는 한 걸음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실천적
묵상

신발을 신기 전 잠시 멈추어 “주님, 오늘도 당신께 돌아갑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 보세요.

출애굽기 3:1-12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2절)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봐어도

광야로 나아가간다는 것은 낮익은 풍경 속에서 낯선 불빛 앞에 멈추는 일입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날 모세는 불에 타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걸음을 멈추고 그 불꽃 속에 계신 하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집 근처 호숫가를 걷다가 부러진 나무를 만났습니다. 중심은 갈라졌고, 뿌리는 물가 진흙 속에 겨우 붙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살아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둛빛 잎들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조용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본 광야의 큰 광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에서 속삭이며 다가오십니다.

떨기나무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국의 권력 아래, 그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바람 한 줄기에도 흔들리고, 권력의 불꽃에 쉽게 타버리는 삶.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 계셨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불로. 그것은 태워버리기 위한 불이 아니라, 머물기 위한 불이었습니다. 버려진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불쭉 다가오는 부르심은 언제나 거창한 무대가 아니라, 아주 작고 조용한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낮고 오래된 일상 속에서 불쑥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무 일 없던 듯한 삶의 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불은 훗날 골고다 언덕 위에서도 타올랐습니다. 십자가의 불은 우리를 태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기 위한 불이었습니다. 그 불은 희미한 등불 같았지만, 결코 지지 않는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타오르심으로, 우리 안에서 다시 불붙게 하셨습니다.

그 불은 사라지지 않기 위해 매일 피어나는 마음이며, 어두운 골목을 밝히는 등불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은 가난한 마을의 새벽 부엌에 먼저 켜지는 희망의 불이고, 포로된 자의 손목을 푸는 자유의 불이며, 눈먼 자의 눈가에 다시 밝히는 햇살의 불입니다. 그 불은 억눌린 사람의 가슴에서 다시 피어나는 노래이고, 침묵하던 이의 입술을 다시 여는 기도의 불꽃입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기 위해, 다시 타오르기 위해 우리에게 옮겨졌습니다. 주께 받은 불로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지피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하루는 꺼지지 않는 불빛 하나로 이어 집니다. 희미한 것 같아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빛으로. 광야로 나아간다는 건, 바로 그 불빛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일입니다.

실천적
묵상

오늘 하루, 눈에 띄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불 하나 밝혀 줄 수 있는 일을 해보십시오.

출애굽기 19:1-6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4절)

찬송: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출애굽한 지 세 달 만에,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과거 노예의 신분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총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움켜쥐지 않고 등에 태웁니다. 하나님의 등에 우리 하나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주시기 전에, 조용히 그의 품을 내어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출 19:5, 레 20:26, 사 43:1, 요 10:14). 율법보다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한 마디를 전하시기 위해, 그분의 날개를 바람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시간이 멈춘 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치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사랑이라는 잉크로, 눈물이라는 문장 부호로 다시 써 주셨습니다.

오래 전, 플로리다에서 교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스페니쉬 노숙자 부부가 아이 셋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요...” 우리는 웬디 햄버거 가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족을 자리에 앉히고, 햄버거를 주문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손을 모아 식사 기도를 드리려던 그때, 매장 안을 훑던 차가운 시선들이 스쳤습니다. 그 틈에, 내 마음 한구석에서 불쑥 올라온 생각. “나는 이들과 달라. 나는 목사야!”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에 업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멀리 서서 바라보는 구경꾼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음 한 구석에 후회가 번져갔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백성이라기보다, 사랑의 산 아래 주저앉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업어 품으셨지만, 저는 그 날개를 의심하며 한 걸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사랑을 받았으나,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광야 같으십니까? 거센 모래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산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부르심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시내산은 명령보다 먼저 하나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자리였습니다. 교회는 율법을 외치기 전에, 눈물로 사랑을 외쳐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그 사랑, 그것이 우리 교회의 진짜 사명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산, 골고다로 걸어가야 합니다. 시내산이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진 자리였다면, 골고다는 그 사랑이 피 흘리며 완성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언덕,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져 우리를 일으키신 가장 깊은 광야의 산이었습니다. 시내산과 골고다 사이를 걷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약자와 함께 울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실천적
묵상

가족 식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옳은 말을 하기 전에, 사랑이 담긴 말을 먼저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민수기 1:1-2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1절)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름이 모든 걸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름 하나로 존재가 기억되고, 사랑이 시작됩니다. ‘민수기’로 불리는 책의 원 제목은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 즉 ‘광야에서’입니다. 구약성경은 책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았고, 이 책도 “시내광야 회막에서”(1:1)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책 제목은 ‘광야에서’였는데, 후대에 인구 조사를 포함하는 숫자에 중점을 두어 백성들의 수를 세다는 의미를 지닌 ‘민수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자리이고, ‘민수기’는 숫자 속에서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불린 이름들이 ‘민수기’ 아래서 숫자가 되었지만—“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1:2)—,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603,550명(민 1:46), 그 많은 숫자 뒤에 숨은 얼굴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신 사랑의 대장정입니다.

무명의 백성들이 광야에 뿌려진 사명의 씨앗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자라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입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말입니다. 계수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약속을 향한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이름 하나를 다시 붙잡아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4주간 서로의 이름을 외웁니다. 직함은 빼고, 이름만 불러가며, 마지막엔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이름을 짚아갑니다. 이름이 하나 둘 붙릴수록 낮설던 공간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이 공동체에 익숙해지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처럼,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길을 찾고, 함께 걷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힘을 과시하려 인구를 세신 것이 아니라(삼하 24:1-10 참조), 약속의 땅을 꿈꾸는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 이름을 하나 하나 불러 주셨습니다.

광야 한복판,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그곳에서 누군가는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따라 광야를 걸었던 장수들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이름을 불러 주신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광야 길을 걸어갑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줌으로써 그들의 광야에 길을 만들어 줍시다.

실천적
묵상

이 글을 읽으면서 떠오른 이름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연락하여 이름을 부르며 따뜻한 안부의 말을 전해봅시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광야를 건너게 하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2026 사순절 묵상집: 광야를 걷다